

스키타이系 裝飾品에 나타난 動物鬪爭文에 對한 研究

金 文 子

水原大學校 衣類織物學科 副教授

A Study on the Art Style of Animal Fight in Scythian Ornaments

Moon Ja Kim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art style of animal fight in Scythian ornaments which had been popular in Steppe region of Eurasia.

Animals were considered to have magical power and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evil or disaster and representations of them thus occupied an important place in life. This style reflected the mythology, the ethical and aesthetic ideals of the warrior-nomad.

With a magnificent understanding of composition and the essential nature of the material, craftsmen fashioned utilitarian objects in animal form: weaponry, horse trappings, clothes, ornaments and jewellery and other everyday objects were all decorated with zoomorphic motifs. Without copying nature, they accurately conveyed the essence of every beast depicted. The highly stylized modelling uses bold accentuated planes, while distinctive features associated with particular species are emphasized and exaggerated.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animal motifs used in Scythian ornaments appears that in some cases the work was intended to be purely ornamental, while many times the motifs had symbolic meaning (such as the successful dominance of the aggressor over the victim portrayed in the attack scenes). Magical use of symbols may have been intended to guarantee the power of the aggressor.

I. 序 論

動物鬪爭文은 이미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초원의 길을 통하여 스키타이계 전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¹⁾ 보이며 스키타이계 문화권²⁾에서는 기본 양식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 투쟁양식은 맹수들을 모티브로 하여 주로 장

신구에 이용되었는데 보통 두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싸우거나 영켜있는 형을 하고 있다. 유라시아 기마 민족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동물 형상을 황금 장식에 즐겨 사용하였는데, 말과 산양, 사자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이 주요 모티브였다. 기마 민족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다른 아닌 금장식 동물 형상이 상징하고 있는 생명력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물투쟁문은 스키타이의 예술품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스키타이족이 사라진 뒤에도 유라시아 대부분의 유목기마민족들의 장식품에 남아 있다.

보통 스키타이 동물투쟁문은 사자, 독수리 같은 육식수나 그리핀이라고 불리는 상상동물들이 양, 말, 멧돼지 같은 초식수를 공격하는 문양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동물 투쟁 모티프는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 머리의 사자 등 복합신 짐승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 기원이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그것은 강력한 야수들을 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지배자들의 소망의 표현이고 권력의 과시였다고 할 수 있다.³⁾

고대 서아시아 미술의 動物鬪爭文은 2개의 동물이 같이 표현되어 있다. 테드로에서出土한 조개로 만든 잔은 단편인데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자가 소를 습격하는 모습(그림 1)이 浮彫되어 있다. 이모티프는 후세까지 반복되어 사용되었는데 신성한 힘의 투쟁을 의미하였으며 고대 이란인들은 이 모티프가 계절의 交替에 대한 심볼로 간주하였다. 즉, 星座의 出現과 관련되어 獅子座를 夏至, 山羊座를 冬至, 牧牛座를 春分이라 하여, 獅子가 들양을 습격하는 모티프는 겨울이 지나고 여름을 맞는 의미이며, 獅子와 소가 같이 있는 것은 春分을 맞아 여름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고 한다. 또한 獅子를 太陽으로 하고 소를 달로 하면, 태양인 여름이 달인 겨울을 습격하는 것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이 모티프는 봄의 도약을 의미하는 심볼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

西아시아의 動物鬪爭文은 드디어 北方草原의 遊牧民族에게 傳來되었는데 유목사회 전역으로 보급되면서 마치 유목민족 고유의 의장인 듯한 느낌을 주게 되었다.⁵⁾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복식의 원류를 이루는 스키타이계 문화권들을 중심으로 스키타이계 장식품에 보이는 動物鬪爭文의 遺例와 樣式, 그리고 象徵性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스키타이 動物鬪爭文을 보여주는 스키타이계 문화지역은 고대 초원의 길을 통해 북방유라시아 전지역에 퍼져 있는데, 스키타이문화, 사키문화, 알타이문화, 노인-우라 문화, 남시베리아문화, 사르마티아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화권에 따르는 각 유례 및 양식들을 각각 고찰하여 각 동물투쟁문을 분석하여 그 상징성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동물투쟁 모티프는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등에 보이는 四神圖 중 玄武圖에 뱀주제의 동물투쟁문⁶⁾ 동물투쟁문과 유사한 수렵도가 있음으로써 그 관계를 추측케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복식품을 비롯한 장식품에 소재를 한정하여 고찰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연관관계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I. 動物鬪爭文의 遺例 및 樣式

1. 스키타이 문화

스키타이문화에 動物鬪爭文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전 45세기인 중후기 스키타이에서부터이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기원한 動物鬪爭文이 동물양식에 도입된 것은 그리이스를 통해서이다.⁷⁾ 스키타이 부족들의 활발한 대외교류로 인하여 스키타이 미술에서도 다양한 기원의 양식요소들이 들어와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리하여 현재 우리들이 스키타이-시베리아 동물양식으로 부르는 형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스키타이 동물양식에는 더욱 큰 변화가 기원전 4세기대에 이루어진다. 이때 만들어진 흑해연안



<그림 1> 조개의 잔
서아시아 테드로 출토-服飾美術 p.184



〈그림 2〉 Gold Plaque
스키타이 Dnieper Zaporozhye Solokha 무덤 출토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p.42

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이성은 그리스 미술전통에 따라 제작되었으면서도 스키타이인들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나갔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그레코-스키타이 양식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카라카도아시키 무덤 출토 멧돼지를 공격하는 사자가 있는 금목걸이가 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것은 스키타이인들이 조각된 보스포로스 유파의 浮彫금속품들이다. 솔로하무덤 출토의 황금빛 콜-오바출토의 금제 가슴장식들이 있다.⁸⁾

기원전 5세기 Seven Brothers 고분에서는 動物鬪爭文이 새겨진 Triangular Gold Plaque가 4개 출토되었다. 그중 2개는 라이온-그리핀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염소상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다른 하나에는 사슴을 공격하고 있는 사자상이 양각되어 있으며 나머지 하나에는 새끼양을 공격하고 있는 독수리상이 양각되어 있다.⁹⁾

기원전 4세기초 Dnieper Zaporozhye Solokha 무덤 출토 Gold Plaque(그림 2)는 왕의 바지에 장식되어 있던 것이다.¹⁰⁾ 수사슴 머리를 물고 있는 사자가 浮彫된 옷 장식이다. 사자는 오른쪽으로 향한 얼굴 전체가 묘사되어 있다. 수사슴을 발로 누르면서 이빨로 머리를 물고 있다. 부채 모양의 사슴뿔이 사자 등위로 배열되었다.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전체적인 구도나 미적 처리는 그리스적이거나 사자의 등뒤에 보이는 평면적인 문양은 스키타이 동물양식의 사슴뿔 모습을 나타낸



〈그림 3〉 Torque
스키타이 Karagodeuashkh 무덤 출토
-Scythian Art plate 240

것이다.

기원전 4세기 Kul Oba 출토 금 팔찌는 두단으로 된 넓은 밴드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표면에는 수사슴을 공격하는 그리핀이 새겨져 있다.¹¹⁾

기원전 4세기 후엽 Kuban Krasnodar krymskaya촌 부근 Karagodeuashkh 무덤 출토 Torque(그림 3)는 끝이 연결되지 않은 고리의 兩端이 멧돼지를 공격하는 사자상으로 장식되었다. 멧돼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채 목을 물어 뜯고 있다. 오리엔트인과 그리스인들은 장식 끝 부분을 항상 짐승의 머리 형태로 조각했던 것에 비해 스키타이인들은 전체적인 형상을 선호하였다. 동물상의 표현력과 제작의 깔끔함에 관한, 그레코-스키타이식 목걸이의 최상품중 하나로, 흑해 북안 보스포로스센터에서 이방인의 귀족층을 위해 제작되었다. 페르시아인들처럼 스키타이인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쿠반지역의 메오티아 부족들은 목걸이를 소유자의 고귀한 신분과 부의 표시로 간주하였다.¹²⁾

2. 사키 문화

사키문화는 표트르 1세(재위기간: 1689~1725)의 시베리아 수집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시베리아 수집품에는 ;!;帶나 帶金具에서만 두서너 마리의 동물이 복잡하게 얽혀 싸우고 있는 구성을 볼 수 있다. 거기



〈그림 4〉 帶金具
사기문화-스키타이 황금 p.171



〈그림 5〉 帶金具
사기문화-스키타이 황금 p.172

에는 전형적인 상상의 怪獸像이 있다. 즉, 실존하는 동물, 짐승과 새가 동물세계의 다른 대표적인 동물들의 부분들과 결합되어 있다. 약탈자인 동물은 환상적인 창조물일지라도 먹이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¹³⁾

기원전 5-4세기 사기문화에 속하는 帶金具(그림 4)는 鑄造된 것으로 날개달린 사자와 말의 투쟁이 浮彫技法으로 透刻되었다. 대칭으로 구성된 또다른 장식판과 쌍을 이룬다. 뒷면에는 원래 네 개의 고리가 뿔뿔이 되어 있었다. 동물상에 보이는 삼각형과 원형의 구멍들, 그리고 눈에는 원래 색깔있는玉石을 감입하였다. 사자 몸통과 영양의뿔, 날개가 혼성된 상상의 맹수가 앞 발로 말의 등덜미를 누르면서 물어 뜯으려고 하고 말은 머리로 저항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모든 상은 側面觀으로 묘사된다. 동글게 흰 자세와 서로 뒤엉킨 형상이 강한 율동력과 표현력을 전달한다. 양식에 관한 한, 이 像은 “알타이”동물 양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장식적인 양식화와 자연주의적 경향이 대담하게 혼합되어 있다. 영양의 뿔이 달린 사자는 원래 페르시아 미술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원전 4세기경에 이르러서야 그리스와 스키타이 미술에 등장한다.¹⁴⁾

기원전 5-4세기 鑄造된 한 쌍의 大金具중의 하나(그림 5)에는 長方形에 뱀과 싸우고 있는 늑대상이 插入되었다. 이러한 주제는 古代에 매우 유행하였다. 뱀은 늑대 몸통을 휘감고 있고, 열린 입은 늑대머리와 맞닿고 있다. 뱀과 싸우는 장면은 시베리아 금제품들 중에

는 두 쌍의 장식판에만 등장한다. 그 중 하나에서는 맹수가 이빨을 드러낸 멧돼지의 머리를 하고 있다. 이 주제는 스키타이 미술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리스 미술 또한 독수리와 뱀의 싸움만을 다루고 있고 후기의 미술도 뱀과 사슴과의 적대 관계만을 다룬다. 그러므로 맹수와 뱀의 싸움은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지역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기원전 5-4세기 속이 비어 있는 鑄造된 大端金具는 왼쪽 부분이 뒤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 내어졌는데, 앞면에는 산양의 목을 이빨로 물고 있는 늑대와 산양이 얽힌채 장식되었다. 산양의 동글게 말린 뿔은 나이테가 半圓으로 표시되어 있고, 늑대는 한 쪽 발로 산양의 목을, 다른 한 쪽 발로 주둥이 부분을 누르고 있다. 꼬리는 뒷다리 사이를 지난다. 수집품엔 이러한 종류의 장식품이 한 개 더 있다. 모두 可用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像을 구성하였다.¹⁵⁾

3. 알타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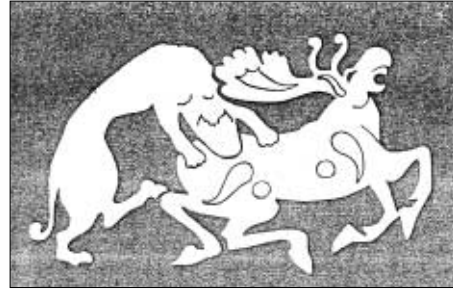
알타이 문화는 B.C 6~4C에 해당하는 유명한 Pazyryk 무덤군 출토의 독특하고 풍부한 부장품들로 유명한데¹⁶⁾ 특히 動物鬪爭文 양식은 알타이의 유물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소아시아와 그레코-페르시아 주제에 기초한 동물들간의 싸우는 장면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알타이 미술에서 動物鬪爭 장면은 고착되고 굳어진 이란 유형



<그림 6> 펠트제의 안장 깔개
알타이 Pazyryk barrow 1 출토-Frozen Tombs of Siberia p.230



<그림 7> 안장 덮개
알타이 pazyryk barrow 2 출토-The Scythians p.163



<그림 8> 펠트덮개 덧장식
알타이 Pazyryk barrow 1 출토
-Frozen Tombs of Siberia plate 170

에 비하여 표현력이 강하고 활기에 차있다. 알타이 장인들은 像을 물체의 형태에 맞추어 조각하였는데, 이를 위해 동물 신체위치와 비율을 변형시킬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Pazyryk barrow 1 출토 붉은 펠트제의 안장 깔개에는 독수리 머리의 그리핀이 산양을 공격하는 動的인 장면(그림 6)이 묘사된 똑같은 두 개의 구도가 아플리케 수법으로 장식되었다.

動物鬪爭文은 고대 알타이 미술에 근원 을 둔 테마로 전체 스키타이 미술 특유의 것이다. 알타이 초기 유목민들은 鬪爭의 테마를 추위와 어둠에 대항하는 열과 빛의 투쟁으로서 이해하였으며 봄이 도래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알타이 그리핀 유형의 벗과 날개 달린 사자그리핀이 산양의 등 위에 올라타고 있다. 앞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180도로 뒤집힌 채로 뒷다리가 올라간 산양의 고통스러운 상은 매우 흥미롭다. 알타이 미술에서는 동물의 단말마적 고통을 그런 기법으로 묘사하였다.¹⁷⁾

Pazyryk barrow 2 출토 안장 덮개에는 산양의 몸을 네발로 타고 있는 호랑이의 도안(그림 7)이 새겨져 있다. 공격자 아래에 있는 피공격자는 앞발을 가슴아래

놓히고 엉덩이를 밖으로 돌리고 뒷다리는 한없이 뻗고 있는데 호랑이는 떨리는 살집속으로 그 어금니를 박고 있다.¹⁸⁾

Pazyryk barrow 1 출토품중에는 사슴털로 채워 넣은 쿠션 두 개를 결합하여 만든 전형적인 고대 알타이 안장도 있는데, 펠트 덮개는 안장 위에 올려졌으며 이는 소아시아 특히 야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으로¹⁹⁾ 소형 카펫을 안장 대신 말 등위에 올렸다. 청색의 덮개는 얇은 가죽으로 만든 덧장식이 한쪽 면에만 장식된다. 덧장식은 큰불사슴을 공격하는 호랑이 형태(그림 8)로 오려져 있는데, 큰불사슴은 주둥이, 짧은 수염, 긴 귀 그리고 장식화된 손바닥 같은 볼륨이 멋지게 표현되었다. 반면 힘있는 공격자 호랑이는 몸의 만곡선과 함께, 수축된 배, 넓은 이마, 짧고, 고양이같은 귀등을 잘 포착했다.

호랑이가 큰불사슴을 공격하는 또다른 장면은 pazyryk barrow 2에서 출토되었는데 안장 덮개에 부착된 것으로 호랑이는 몸과 목을 특징적으로 비트는 포즈와 함께 꼬리는 끝을 킁을 넣었으며 부드러운나 움켜잡은 발톱은 머리를 들고 뒤로 뒤틀림 큰불사슴을 물고 있다.²⁰⁾

Pazyryk barrow 2 출토 플라곤은 식물의 씨앗이나 부리를 저장하던 가죽製 容器이다. 발견 당시에는 대마초 씨앗이 가득 차 있었다. 좁은 입의 편평한 수통 모양의 두 개의 둥근 가죽板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가는 가죽끈으로 주머니 형태로 꿰매었다. 양면에 멧닭 수컷 (또는 雷鳥?)을 공격하는 그리핀이 덧장식으로 붙어 있다.²¹⁾

4. 노인 우라 문화

노인-우라 문화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까지의 匈奴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로 생각되며 알타이 문화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일용품, 가구, 의복, 직물, 장신구, 마구 등에서 부장되어 있었는데 이들 출토품에서 보면 그 모티프나 구도는 알타이 및 남시베리아의 유목민족과 공통되며 이들 작품들은 흉노인들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아니면 초원의 길에서 유목민들과 교류하면서 가지고 온 것 같다.²²⁾

노인-우라 6호분 출토 펠트 카펫에 수놓은 문양에 보이는 동물투쟁문(그림 9)은 라이온-그리핀이 大角鹿을 공격하고 있는 도안으로 파지르크 고분 출토품들을 연상시킨다.²³⁾ 노인-우라 제5호분 출토 펠트 카펫 도안(그림 10)에는 아크와 뿔달린 사자가 서로 투쟁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²⁴⁾



〈그림 9〉 펠트 카펫
노인-우라 6호분-スキタイ의藝術 第31圖

5. 남시베리아 문화

남시베리아문화에 보이는 動物鬪爭文은 콘누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카카스-미누신스크 분지에서 출토된 기원전 2-1세기에 속하는 청동제 帶金具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투바는 우유크(Uyuk)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청동, 금과 뼈로 만든 독자적인 지역 양식을 지닌 예술품을 만드는데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였다. 이 지역은 기원전 8세기로 추정되는 아르잔 무덤의 발굴 이후 특별한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투라니아-우유키아 중심에 위치한 그곳에서 동글게 말린 동물상을 비롯한 동물양식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動物鬪爭文은 특히 남시베리아 지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티브로써 그 기본적인 意匠은 猛獸가 그 犧牲物의 배후에서 습격하고 있는 의장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유물이 나오고 있다.²⁵⁾

기원전 5-4세기 이르쿠츠크 만주르카강 출토 버클(그림 11)은 호랑이가 야생 염소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透彫되어 있다. 두 동물 모두 몸을 비틀은 격동적인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염소의 앞다리 중 하나는 호랑이 입 속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발굽으로 호랑이의 주둥이를 밀고 있다. 염소의 뒷다리는 분리되었다. 또한 호랑이는 염소의 몸통을 발톱으로 누르고 있고 뒷다리로 염소의 등을 고리처럼 감았다. 螺旋



〈그림 10〉 펠트 카펫
노인-우라 제5호분 출토-スキタイ의藝術 第30圖



<그림 11> 버클



<그림 12> Plaque

남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오즈나첸나이아村 출토-스키타이 황금 p.253

남시베리아 이르쿠츠크 만주르카강 출토-스키타이 황금 p.256

狀으로 된 호랑이의 동글고 扁桃形으로 된 눈과 입가의 주름이 강조되어 있으며, 야생 염소상, 특히 머리와 다리도 신경을 쏟아 제작된 것이다.

기원전 5-3세기 투바공화국 사그리바지 무덤터 출토 거울에는 손잡이에 두 마리의 고양이과 猛獸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한쪽면만 양각 되어있다. 왼편의 짐승은 이빨과 발톱으로 공격하고, 얼굴이 보이는 오른편 짐승은 왼편 짐승의 등을 물어뜯고 있다. 두 짐승은 같은 형태의 뒷다리를 갖고 있고 꼬리는 위로 말려 있다. 눈은 물방울 모양으로 묘사된다.

기원전 2-1세기 크라스노야르스크 오즈나첸나이아村 출토 透刻된 長方形 Plaque(그림 12)에 두 마리 말이 싸우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왼쪽의 말은 오른쪽 말의 어깨 사이를 이빨로 물고 있고 오른쪽말은 왼쪽 말의 앞다리를 물어뜯고 있다. 장식판은 浮彫로 제작되었고 끈을 걸기 위한 핀이 있다. 말의 動體는 量感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눈과 코는 樣式化되었다. 幾何學的 圖案의 발굽과 발목뼈는 거친 선을 눌러 장식한 것처럼 되어 있다. 뺨과 어깨뼈는 앞모양으로 양식화되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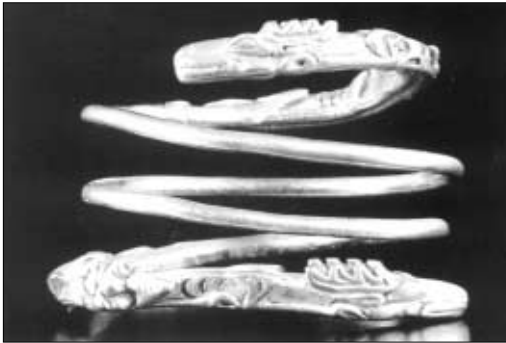
6. 사르마티아 문화

사르마티아 문화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까지 존재하였다. 흑해 北岸 스텝지대의 사르마티아

문화가 가장 번성한 때는 기원 후 1~2C이다. 그 때 사르마티아인들은 볼가와 다뉴브 사이의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였다. 사르마티아 미술은 스키타-시베리아 미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공통된 소재, 구성과 양식적 도안의 유사성에 나타난다. 쿠반지역의 주보프스키 논장의 사르마티아 武士墓에서 출토된 금제 飾板은 “동글게 말린 野獸”라는 스키타이 모티브의 부활을 볼 수 있다. ‘사르마티아 동물양식’ 유물과 포드르1세 시베리아 수집품과의 주요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 양자 모두 동물신체의 표현에 있어 有色嵌玉을 사용하고 격투중인 동물상의 소재가 특징적이다. 장신구에 보석을 象嵌하는 기술은 사르마티아인들의 독자적인 기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⁷⁾

기원전 1세기 볼가강 하류역 볼고그라드 베르크네에 포그롬노예村 2號墳 2槨 출토 나선형 금팔찌(그림 13)는 兩端이 수사슴을 공격하는 고양이과 猛獸로 裝飾되었다. 兩面의 浮彫로 이루어진 이 동물상 들은 아주 길다랗게 표현되어 있고 다리는 접혀서 배 밑으로 눌러져 있다. 전체적인 장면이 풍기는 전통적인(즉 圖式的)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물문양에서 몸체와 머리 부분은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기원전 1세기 베르크네에 포그롬노예村 2號墳 2槨 출토 Belt Plaque(그림 14)는 가죽띠에 붙는 금판으로 浮彫된 장식판으로 가죽띠에 붙어있었다. 뒷면에는 띠



〈그림 13〉 금팔찌

사르마티아 불가강 하류역 볼고그라드 베르크네에
포그름노예村 2號墳 2槨 출토-스키타이 황금 p.264



〈그림 14〉 Belt Plaque

사르마티아 베르크네에 포그름노예村 2號墳 2槨 출토
-스키타이 황금 p.265

를 죄기위한 고리와 걸쇠가 있다. 고양이과 猛獸가 말의 몸통과 머리, 염소의 뿔을 가진 상상적 동물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된 장식판이다. 어깨와 엉덩이 근육, 볼과 肋骨를 강조하기 위하여 원래는 여러 형태의 有色 嵌玉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嵌入部만 남아있다. 동물의 털은 음각된 短斜線이나 插入된 점으로 묘사되었다.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쿠반 주보프스키村 1호분 출토 半球形의 장식단추는 뒷면에는 가죽끈이 지나가기 위한 銀製 고리쇠가 있다. 앞면에는 황소를 공격하는 날개달린 그리핀상으로 장식된다. 눈, 귀, 발톱과 어깨와 허벅다리 등의 근육은 有色 嵌玉을 깊이 박아 강조된다.

기원후 1세기 로스토프 노보체르카스크市 호흐라치 무덤 출토 목걸이의 帶狀의 장식판에는 동일한 주제의 장면, 즉 환상의 동물이 그리핀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싸우는 모습은 아니고 상투적인 흥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공격자는 주둥이만 희생물에 대고 있고 이 희생물은 머리를 공격자 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짐승이 일렬로 울동적으로 활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고대 오리엔트의 창조적 미술에서 보여지는 전통적인 구성을 반영한다. 터키석, 납유리와 산호를 감옥함으로써 눈, 귀, 근육살과 어깨 뼈가 강조되었다. 털과 발톱, 갈비뼈는 짧은 빗금을 새겨서 표현하였다.²⁸⁾

III. 動物鬪爭文 種類 및 像徵性

이상의 각문화권의 動物鬪爭文의 樣式 특징은 전체적으로 '스키타이 동물투쟁' 양식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권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먼저 스키타이문화에서는 오리엔트인과 그리스인들은 장식 끝 부분을 항상 짐승의 머리 형태로 조각했던 것에 비해 스키타이인들은 전체적인 형상을 선호하여 動物鬪爭文을 표현하였다. 장식품에 표현된 動物鬪爭文에는 주로 라이온-그리핀, 사자, 그리핀, 독수리 등이 염소, 사슴, 새끼양, 멧돼지 등을 공격하는 양식이다.

사키문화에는 전형적인 상상의 怪獸像이 있다. 즉, 실존하는 동물, 짐승과 새가 동물세계의 다른 대표적인 동물들의 부분들과 결합되어 있다. 장식품에 표현된 動物鬪爭文은 상상맹수, 뱀, 늑대가 말, 늑대, 산양 등을 공격하는 양식인데 특히 맹수와 뱀의 싸움은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지역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알타이문화에서는 動物鬪爭文 양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장식적인 양식화와 자연주의적 경향이 대담하게 혼합되어 있다. 動物鬪爭文에는 호랑이, 독수리머리 그리핀, 그리핀이 산양, 큰불사슴, 멧돼지를 공격하는 양식이다. 알타이 초기 유목민들은 鬪爭의 테마를 추위와 어둠에 대항하는 열과 빛의 투쟁으로서 이해하였으며 봄이 도래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인-우라문화 動物鬪爭文의 모티브나 구도는 알타이 및 남시베리아의 유목민족과 공통되는데, 라이온-그리핀이 大角鹿을 공격하거나 야크와 뿔달린 사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도안들이 있는 작품들은 흉노인들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아니면 초원의 길에서 유목민들과 교류하면서 가지고 온 것 같다.²⁹⁾

남시베리아 문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動物鬪爭文 모티브로써 그 기본적인 意匠은 호랑이가 야생 염소를 공격하는 장면등 猛獸가 그 犧牲物의 배후에서 습격하고 있는 의장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유물이 나오고 있다.³⁰⁾ 또한 말과 말이 대적하고 있거나 맹수와 맹수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등의 독특한 도안도 보이고 있다.

사르마티아 문화에는 “둥글게 말린 野獸”라는 스키

타이 모티브의 부활을 볼 수 있다. ‘사르마티아 동물 양식’ 유물과 표드르1세 시베리아 수집품과의 주요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 양자 모두 동물신체의 표현에 있어 有色 嵌玉을 사용하고 격투중인 동물상의 소재가 특징적이다. 수사슴, 말의 몸통과 머리, 염소의 뿔을 가진 상상적 동물을 공격하는 고양이과 맹수 도안이 있으며, 황소를 공격하는 날개달린 그리핀상이 있고 반대로 그리핀을 공격하는 환상동물 도안도 있다.

이중 특히 날개달린 사자와 말의 투쟁(그림 4)이나 라이온-그리핀이 大角鹿을 공격하고 있는 도안(그림 8)은 태양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 광명과 암흑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란의 사상이 반영되었다는 설도 있다.³¹⁾

이상의 각 문화권에서 보이는 동물투쟁문의 동물의 종류 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스키타이계 동물투쟁문의 동물 종류

문화권	용도	동물투쟁 문양	비고
스키타이	plaque	라이온-그리핀 → 염소	
	plaque	라이온-그리핀 → 염소	
	plaque	사자 → 사슴	
	plaque	독수리 → 새끼양	
	plaque	사자 → 수사슴	
	팔찌	그리핀 → 수사슴	
	torque	사자 → 멧돼지	
사키	대금구	상상맹수 → 말	
	대금구	뱀 → 늑대	
	대단금구	늑대 → 산양	
알타이	안장덮개	호랑이 → 산양	
	안장갈개	독수리머리 그리핀 → 산양	
	안장덮개	호랑이 → 큰뿔 사슴	
	플라곤	그리핀 → 멧닭(雷鳥)	
노인-우라	펠트 깔개	라이온-그리핀 → 사슴	
	펠트 깔개	뿔달린 사자 → 야크	
남시베리아	plaque	호랑이 → 야생염소	
	거울	맹수 ↔ 맹수	같은 종류가 대적
	plaque	말 ↔ 말	같은 종류가 대적
사르마티아	팔찌	고양이과 맹수 → 수사슴	
	belt plaque	고양이과 맹수 → 상상동물	
	장식단추	그리핀 → 황소	
	목걸이	환상동물 → 그리핀	그리핀이 피공격자로 변함

이상에서 살펴보면 스키타이계 장식품들에 보이는 동물투쟁문에서는 주로 공격자와 피공격자로 나누지만 때로는 같은종류가 대적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다른 문양에서 공격자가 피공격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동물투쟁 모티브는 날개달린 사자, 독수리 머리의 사자 등 복합신 짐승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 기원이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2개 이상의 개체들과 이루어진 구성장면에는 굽동물과 맹수, 굽동물과 환상동물이 싸우는 투쟁장면이 많다. 이 경우 동물의 눈은 원 또는 동심원으로, 귀는 하트형으로, 코는 두 개의 원으로 일정하게 정형화 되어 있고 실물보다 크게 과장되었다. 불과 굽도 실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표현되었고, 일정한 정형성을 갖고 있다. 동물의 신체에 다른 동물을 삽입하거나, 혹은 특정 신체부위를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³²⁾

싸우는 짐승들의 잔인한 힘, 절박한 고통감을 실감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도안이 내포하는 주술적 힘을 강하게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투쟁장면을 모티브로 하여 동물의 몸을 좁은 공간에 압축시키고 그 표현을 도식화함으로써 동물의 힘을 과장, 강조하고 그 동물의 힘으로 자기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스키타이족의 동물양식이었던 것이다.³³⁾

동물투쟁문에서 보이는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공격자인 동물과의 교감은 인간존재의 根源에 있다. 유목민의 생활은 사육하는 동물과 함께하며 무리를 이끌고, 수호하며 절대적으로 습격하고자 하는 野獸와의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없이 이동해가며 위험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들의 적인 野獸는 위험 그 자체이면서 역으로 신성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투쟁적인 강력한 자세는 존재감과 고귀함의 化身으로 표현된다.³⁴⁾

스키타이족의 動物鬪爭 주제의 애용은 목축민으로서의 가축수호 정신의 발로라고 하겠고, 그것은 강력한 야수를 누를 수 있는 절대적 힘을 얻고자 하는 지배자들의 소망의 표현이고 권력의 과시였다고 생각된다.

IV. 結 論

이상으로 스키타이 裝飾品에 나타난 動物鬪爭文의

遺例 및 樣式, 像徵性을 살펴보았다.

스키타이 動物鬪爭文은 이미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고대 초원의 길을 통해 북방유라시아 전 지역에 퍼져 있는데, 스키타이문화, 사키문화, 알타이 문화, 노인-우라문화, 남시베리아문화, 사르마티아문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스키타이계 문화권에서는 기본 양식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문화권의 動物鬪爭文의 樣式 특징은 전체적으로 '스키타이 동물투쟁' 양식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권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먼저 스키타이문화에서는 오리엔트인과 그리스인들은 장식 끝 부분을 항상 짐승의 머리 형태로 조각했던 것에 비해 스키타이인들은 전체적인 형상을 선호하여 動物鬪爭文을 표현하였다. 사키문화에는 전형적인 상상의 怪獸像이 있다. 즉, 실존하는 동물, 짐승과 새가 동물세계의 다른 대표적인 동물들의 부분들과 결합되어 있다. 알타이문화에서는 動物鬪爭文 양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장식적인 양식화와 자연주의적 경향이 대담하게 혼합되어 있다.

노인-우라문화 動物鬪爭文의 모티브나 구도는 알타이 및 남시베리아의 유목민족과 공통점이 있다. 남시베리아 문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動物鬪爭文 모티브는 猛獸가 그 犧牲物의 배후에서 습격하고 있는 의장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유물이 나오고 있다.

사르마티아 문화에는 "둥글게 말린 野獸"라는 스키타이 모티브의 부활을 볼 수 있다. 동물신체의 표현에 있어 有色 嵌玉을 사용하고 격투중인 동물상의 소재가 특징적이다.

動物鬪爭文은 신성한 힘의 투쟁을 의미하였으며 고대 이란인들은 이를 이 모티브가 계절의 交替에 대한 심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강력한 野獸를 누를 수 있는 절대적 힘을 얻고자 하는 지배자들의 소망의 표현이고 권력의 과시였다고 생각된다. 스키타이족의 動物鬪爭 주제의 애용은 목축민으로서의 가축수호 정신의 발로라고 하겠고, 싸우는 짐승들의 잔인한 힘, 절박한 고통감을 실감넘치게 표현함으로써 도안이 내포하는 주술적 힘을 강하게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적

인 猛獸는 위험 그 자체이면서 역으로 신성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의 투쟁적인 강력한 자세는 존재감과 고귀함의 化身으로 표현되었다. 동물의 투쟁장면을 모티브로 하여 동물의 몸을 좁은 공간에 압축시키고 그 표현을 도식화함으로써 동물의 힘을 과장, 강조하고 그 동물의 힘으로 자기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動物鬪爭 모티브는 우리나라에는 수렵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장식유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유물의 발견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확대 관계 연구를 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 185.
2. '스키타이' 라는 명칭은 B. C 7-3C에 걸쳐 흑해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遊牧騎馬民族을 지칭하는 말이나, '스키타이계' 문화라는 것은 이들 스키타이인 들의 文化樣式을 根幹으로 하여 북방유라시아 스텝지대를 지나는 '초원의 길'을 통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던 廣義의 스키타이문화를 말한다.
岡崎敬, 東西交渉の考古學, 東京: 平凡社, 1973, p. 46.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民族文化社, 1994, p. 11.
3. 김원용, 스키타이족과 그 미술, 스키타이황금, 조선일보사, 1991, p. 295
4. 조규화, op. cit pp. 183-184.
5. 杉本正年,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경춘사, 1995, p. 488.
6. 권영필, '玄武' 圖像과 중앙아시아 '動物鬪爭', 중앙아시아학회 中央아시아研究 제1호, 1996, p. 233.
7. 국립중앙박물관 편, 스키타이황금, 조선일보사, 1991, p. 92.
8. 앞글, pp. 92-93.
9. M. I. Artamonov,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trans. Kupriyanova, 1966, p. 41, Plate 116, 118, 120, 122.
10. http://www.hermitagemuseum.org/tmplobs/F7_23MSOF7PCJQXGV96.jpg
11. Boris Piotrovsky, Liudmila Galanina, Nonna Grach, SCYTHIAN ART, Phaidon · Oxford · Aurora · Leningrad, 1987, Plate 179.
12. 국립중앙박물관(편), op. cit p. 136.
13. Dogny Carter, The Symbol of the Beast-the animal style art of Eurasia, New York: The Ronard Press Co. 1957, p. 28.
14. 국립중앙박물관 편, op. cit p. 170.
15. 앞글, pp. 172-174.
16. 앞글, p. 180
17. 앞글, p. 194.
18. T. T. Rice. The Scythians, London: Thames & Hudson, 1957, pp. 163-64.
19. 국립중앙박물관 편, op. cit p. 196.
20. S. I. Rudenko, Frozen Tombs of Siberia, trans M. W. Thompso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0, pp. 229-30.
21. 국립중앙박물관(편), op. cit p. 210
22. 杉本正年, 문광희 역 op. cit pp. 458-459.
23. E. D. Phillips, The Roral Hordes, London: Thames & Hudson, 1965, p. 116.
24. 加藤九祚, スキタイの藝術, 東京: 新時代社, 1970, 第30
25. Ibid. pp. 84-85.
26. 국립중앙박물관(편), op. cit pp. 254-56,
27. 나가사와 가즈도시, 이재성 역,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1990, p. 38.
28. 국립중앙박물관 편, op. cit pp. 264-272.
29. 杉本正年, 문광희 역, op. cit pp. 458-459.

30. 加藤九祚, スキタイの藝術, 東京: 新時代社, 1970, pp. 84-85.
31. 曹圭和, op. cit. p. 185.
32. 정석배, '사카'와 스킨타이 동물양식, 중앙아시아학회 발표논문, 1999, p. 7.
33. 김원용, op. cit. p. 295.
34. 岡本太郎, 騎馬民族の呪力, 新潮古代美術館, 東京:新潮社, 1982, p. 124.